

영혼, 생명, 우주*

— 191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의 충격과 '죽음'의 극복 —

권보드래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논문분야** 한국 근대문학-문화사

■ **주제어** 영혼, 생명, 우주, 인격, 역사, 제1차 세계대전, 죽음, 이광수, 3·1 운동

■ **요약문**

이 논문의 관심사는 문명론적 위계와 국가 지상주의가 함께 붕괴했던 1910년 이후, 조선과 조선인이 민족과 개인의 수준에서 새로운 존재 근거를 모색했던 과정이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이 준 충격을 통해 '죽음'을 꼭짓점으로 하는 개체적 실존이 자각되고, 그 거주 환경으로서 무한한 우주와 반복되는 시간이 의식된 과정에 초점을 맞추려 했다. '영혼'과 '생명'과 '우주'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이 변화의 과정은 한국 근대문학의 기원이라 할 만한 장면에 잇닿아 있지만, 보다 넓게는 3·1 운동의 정신사적 배경과 연관되어 있다. 시·공간의 무한한 팽창, 그 안에서 이루어진 주체의 위치 조정이 1910년대 말~1920년대 초에 있어 문화와 정치의 기본 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3·1 운동의 시발에 중요한 자극이 되었으며, 아직까지 꾸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대략의 논지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단일한 주체로서의 '인류'와 그 서사로서의 '역사'를 발견하는 데서 일단락되는데, 문학의 기원과 정치의 기원을 겹쳐 보는 한편 3·1 운동의 엘리트적 근원과 민중적 자율성의 동학(動學)을 융합시켜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먼 기대이지만, 여기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식민지 조선에 미친 충격을 1910년대에 사상·문화가 재편되어 간 양상과 교직시켜 보려는 개략적인 시도에서 그친다.

* 접수일(2011.6.17), 심사 및 수정(2011.6.22), 게재확정일(2011.6.23)

1. 우주의 천체론과 인간의 생리학

1] 균열은 진작부터 있었다. 막 소년기를 벗어나고 있던 이광수가 “대저 인생이란 무엇인고?”라고 물었을 때, 1910년 당시로서 그것은 제법 이질적인 질문이었다. 질문 자체가 잊혀졌을 리야 없겠지만 그 공적·사회적 표현이 드문 시절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한제국이라는 국가가 미래시제를 기약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고, 그에 상응하여 접근과 실천의 방법에서도 강렬한 현재성이 요청되었기에, 궁극의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난제는 유보하는 것이 통례였던 탓이다. 통례를 비껴나면서 이광수는 먼저 “온 곳”과 “갈 길”을 알 수 없는 생의 不可知를 탄식한다. 不達人과 才士가 씨름했지만 저마다의 해결책을 찾았을 따름, “무한한 시간”에 비기면 사람의 생은 끝끝내 “一滴”만도 못하며 “우주의 無限無邊”에 빗대 보면 지구조차 “창해의 一粟”임을 면치 못한다. 우주론적 시·공간은 개인으로선 감당할 수 없는 크기다. 무한 앞에서 현기증을 느낀 후 이광수는 먼저 내면으로의 응축을, “목적지야(…) 至善이나 至惡이나 알은 체 없고 다만 정신의 명령대로” 전진해 나간다는 노선을 택하지만, 모종의 계기로 “국가의 榮枯와 나의 個生의 榮枯” 사이 일치를 절감한 후 다시 국가주의로 그 노선을 수정하고 있다.¹⁾

스스로 기독교-대동주의-허무주의-본능만족주의-애국주의로 요약하고 있는 10대 중·후반 이광수의 정신적 궤적은 1900년대의 애국·계몽사상이 다양한 가능성을 봉합시킨 거대 서사였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케 해 준다. 성리학적인 이념이 해석체계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후, 존재론적 모색이며 쾌락과 번영에 대한 관심이며 관계와 질서와 상징을 구축하려는 시도 등, 갖가지 풀려난 가능성은 ‘국가’라는 대타자 아래 옹색하게 거주하고 있었다. “대저 인생이란 무엇인고?” 같은 질문이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

럼에도 다종의 문제, 다양한 주의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은 비단 이광수만이 아니었다. “허무주의로서 사회주의로, 자연주의로서 도덕주의로” 방황하는 사상적 모색은 이미 1900년대에 일부 청년 사이 번져 있던 풍조였으며²⁾ 톨스토이와 투르게네프를 거쳐 고리끼까지 섭렵하고 바이런을 통해 악마주의적 과감성에 공감하는 편력 또한 드물지 않았다.³⁾ 머잖아 분출될 수밖에 없었던 이들 경향은 1910년대 중반, 국가 상실의 충격이 受理되면서 본격적으로 쟁점화되기 시작한다. 성리학적인 이념도 구국을 위한 계몽적 열정도 기세를 잃은 후 세계의 상과 존재의 감각은 새로이 정초되어야 했던 것이다. ‘영혼’과 ‘생명’과 ‘우주’는 바로 이 시기, 1910년대를 통해 주체의 재형성을 도왔던 중요한 개념들이다.

2] 이광수가 발견한 시·공간의 무한이란 물론 각종 봉건적 제약에서 풀려난 주체의 감각과 접질 것이다. 공(空)이나 태허(太虛) 관념이 세계의 근원에 대한 각종 자연과학적 정보로 변형되었다는 사실 또한 자아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상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이미 조선 후기에 地=球說이나 무한우주론이 제창되기 시작한 이래,⁴⁾ 『한성순보』가 창간호에 「지구도해」와 「지구론」을 실었고, 1905~1910년이라는 계몽의 폭발기에 지리·地文·天文 등을 주제로 다양한 신지식이 유통되어, “지구가 雖云廣大나 彼 무궁히 광활한 우주에 대비하면 滄海의 一粟”이라는 의식이 자라나고 있을 때였다. 무한한 공간을 배경으로 시간 역시 “吾人의 일평생 생활하는 시간이 雖云百年이나 彼 무한히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一瞬萬年の 比”라는 무한성

2) 夢夢, 1909, 「요요오한(四疊半)」, 『대한홍학보』 8호, 28쪽.

3) 夢夢, 앞의 글, 25~28쪽; 이광수, 1979, 「다난한 생애의 반생」, 『이광수전집』 8, 우신사, 445쪽.

4) 홍대용을 중심으로 천체론에 있어 ‘무한이라는 개념의 적극적 도입’을 시도한 양상에 대해서는 구만옥, 2001, 「조선후기 주자학적 우주론의 변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85~290쪽 참조.

1) 孤舟, 1910, 「余의 자각한 인생」, 『소년』 3권 8호, 17~22쪽.

의 감각 속에서 수용되었다.⁵⁾ 이렇듯 무한대로 팽창하는 시·공간 속에서 주체는 자유와 위축을 동시에 경험한다. 무한성의 감각 자체가 성·신분·지역에서 비롯된 위계를 부차화시키면서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게 해 주었다면, 근대 자연과학적 지식에 의해 理-氣를 통한 인간 내부의 우주론적 계기가 부정되었다는 사실은 개개의 실존이 위축되고 왜소화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 인간은 특권적 지위를 잃고 진화라는 연쇄 속 하나의 고리로 전락한다. 이 시각을 압축한 지식체계로서 생리학은 못 동·식물과 인간에 “該 생활체 각 기관의 생활현상을 연구”한다는 동등한 시각에서 접근했으며⁶⁾ “吾人の 신체도 또한 일종의 物”임을 강조하며 그 화학적 성분을 나열하곤 했다.⁷⁾ 당연히 근대 자연과학 수용의 단계나 계급적 변동의 구조를 참작해야만 ‘영혼’이며 ‘생명’이며 ‘우주’ 같은 개념에 접근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여기서는 지식과 사회의 변동이 신체에 새겨지는 인식론적 계기에만 주목하고자 한다. 객관적인 지식으로서의 자연과학이나 외부적 변수로서의 사회적 동학(動學)이 개인 고유의 인식과 실천으로 변환되는 지점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 제1차 세계대전의 충격과 문명론의 부정

① ‘우주’에 대해서는 별다른 접근이 보이지 않으나, 최근 몇 해 사이 1910년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가운데 ‘생명’이나 ‘영혼’ 등의 계기가 갖는 연속성의 효과에 대해서도 고찰이 이루어진 바 있다. 에머슨(R. W. Emerson)이나 기타무라 도코쿠(北村透谷),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특히 상세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靈을 핵심으로 하는 생명력의 약동, 그

체현자로서의 ‘新人’이라는 관념이 문학을 축으로 근대정신의 이념적·양식적 초석이 되었으며 낭만적 자아에서 계급문학에까지 이르는 변이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다.⁸⁾ 그러나 영혼-생명-신인이라는 발상 자체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기독교의 영향이나 위에서 언급한 사상가들의 감화를 거론할 수 있겠으나, 무한한 시·공간 속 한낱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1900년대식 도입이 어떻게 영혼과 생명과 物活論의 우주에 대한 승인으로 변주될 수 있었을까? 변주가 가능했다손 쳐도, 고립이나 도피 쪽을 향할 수도 있었던 이들 개념이 新生에의 의지로 비약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에머슨의 여러 저작 중에서 1850년 이전의 책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Nature(1837), Representative Man(1850)] 이후 노예해방론자이자 여성참정권론자로서 에머슨이 취했던 정치적 행보⁹⁾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데서 보듯, 또한 기타무라 도코쿠가 ‘내부생명’의 초점으로서 문예와 冥契[Inspiration]를 강조한 사상가로 수용된 데서 확인되듯¹⁰⁾ 1910년대에 있어 ‘영혼’과 ‘생명’의 계보는 보수화되면서 저마다의 고립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다. 전시대의 공적이고 정치적인 삶에 대한 反動이 싹틀 법한 시기였던 데다, 새로운 지배권력=총독부에서 평범한 사적 생애를 적극적으로 추천했고, 식민지화와 세계대전이라는 충격 속에서 외부와의 단절을 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10년대의 ‘영혼’과 ‘생명’과 ‘우주’는 종교와 문학·예술론을 가리키는 한편으로 사회·정치적 제도에 대한 변혁 의지로 수렴되었으며, 그 점에서 멀리 3·1 운동을 예비한 정신적 변동을 표시해 뒀다.

② 검열 탓이 결정적이겠으나 인쇄된 문자의 세계에서 1910년의 강점과 1919년 3·1 운동에 대한 직접적 발언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1910년대를 결

5) 장웅진, 1906, 「과학론」, 『태극학보』 5호, 9쪽.

6) 이명섭, 1909, 「생리학」, 『서북학회월보』 16호, 18쪽.

7) 송현석, 1910, 「생리위생학」, 『서북학회월보』 19호, 25쪽.

8) 이철호, 2006,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종교적 자아 담론—靈, 생명, 신인 담론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3, 166~167쪽.

9) J. C. Rowe(1997), *At Emerson's Tomb*, Columbia Univ. Press, p.21.

10) 許培寬, 2002, 『北村透谷とEmerson比較文學研究』, J&C, 431쪽.

정한 가장 중요한 경험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했던 셈인데,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세계사적 변동, 1914~18년의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라면 적지 않은 감상과 논평을 찾아볼 수 있다. 현실-세계를 상징하는 사건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언급은 강점과 3·1 운동이라는 두 계기에 대한 의견 표명을 아우르는 효과 역시 발휘했으리라고 짐작된다. 논증이 필요한 가설이겠으나,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사적 동시성의 감각을 체득했고 민족-자아의 세계 내 위치에 開眼케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면, 이 세계사적 사건에 대한 반응이 세계-내-주체로서 민족의 현실에 대한 발언을 내포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음직하다.

제1차 세계대전(1914~18)은 유럽 대륙을 전장으로 치러졌지만 세계를 바꾸어 놓은 전쟁이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꼭 한 세기 동안 평화를 구가했던 유럽은 4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 왕정-부르주아 협력체제로 안정되어 있던 옛 세계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유럽의 몰락'이라 불린 광범한 해체 현상 속에서 미국과 소비에트가 신생했으며, 패전국 식민지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에서 경계의 재조정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파괴적이었으나, 전쟁은 열광에 가까운 환영을 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발발과 동시에 영국에서는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는 문구가 유행하기 시작했고¹¹⁾ 청년들은 '특별한 명예', '기적적인 경이'라는 자궁으로써 전장에 나아갔으며,¹²⁾ 『마의 산』이나 『데미안』 결미에서 보이듯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마침내 진짜 삶이' 개시되었다는 흥분이 고조되었다. 아마 연합국 진영에 가담했던 일본의 영향 때문이겠지만, 조선 청년들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이 전쟁이 독일의 군국주의·전제주의에 맞선 평화주의의 전쟁이라는 영국 발 선전이 수긍되는 듯 보였다.¹³⁾ 그렇다면 문명권

11) 소설가 H. G. 웰즈가 유행시켰다고 한다. 웰즈는 또한 '최후의 전쟁', '인민의 전쟁'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A. Gregory, *The Last Great War: British Society and the First World War*; Cambridge Univ. Press, p.5).

12) P. Johnson, 『세계현대사』 1, 이희구·정승현 옮김, 한마음사, 39쪽.

13) 서춘, 1917, 「구주전란에 대한 3대의문」, 『학지광』 14호, 16쪽.

내부에서 더 선진적인 문명이 후진적인 문명의 오류를 교정하는 사건으로 전쟁이 평가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폭력의 규모는 압도적이었다. 전사자 1천만에 부상자 2천만이라는 가공할 숫자에서 보이듯 제1차 세계대전은 대규모 살육전이었으며, 그중 상당수가 어떤 戰果도 거두지 못한 대치전에서의 희생이었다는 점에서 파괴는 더욱 부조리했다. "포성이 動地하고 연기가 漲天하며 칼끝에 불이 나고 눈 안에서 피가 나니 이것이 진실로 지옥이요 이것이 참으로 악마로다."¹⁴⁾ 『매일신보』도 매일 제2면 전체를 전쟁 보도에 할애했지만,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은 그 외에 『東京毎日』이나 『大阪朝日』 같은 일본 신문을 읽고 『戰爭實記』 류의 책도 참조했던 것 같다.¹⁵⁾ 전장의 아비규환이 가장 충격적으로 각인되었던 것 같지만, 중립국 벨기에가 침공당한 것 같은 사건도 경악을 불러 일으켰다.¹⁶⁾ 시체를 밟고 선 병사의 그림에 '快哉아! 獨軍아!'라는 제목을 붙이고 '육보고 매맞고 德軍에게 참혹하게 밟히어 이 세상을 떠나는 백이의국의 불쌍한 소녀'라고 표제를 단 화보에서 보이듯¹⁷⁾ 제1차 세계대전 초기 전쟁의 야만성은 독일의 벨기에 침략을 통해 가장 흥분된 어조로 전달된다. 일찍이 1905~10년의 보호국체제 하에서 대한자강회-대한협회 같은 일부 정치단체에서 중립화론을 독립의 유일한 방략으로 제시했던 기억 때문에 타격은 더욱 컸을 것이다. 벨기에 망명정부를 위한 모금운동에 동정을 표하고¹⁸⁾ 전사한 벨기에 병사를 애도하는 시를 지으면서¹⁹⁾ 조선 청년들은 구미 문명의 선진성 자체에 대한 회의를 질게 할 수밖에 없었다.

14) 장덕수, 1915, 「신춘을 迎하여」, 『학지광』 4호, 1쪽.

15) 일찍이 『일청전쟁실기』와 『일로전쟁실기』를 간행한 博文館에서는 1914~18년 사이 총 20책에 달하는 『구주전쟁실기』를 순차적으로 발간했다. 내용 및 독서의 실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치 못한 상태다.

16) 「가련한 백이의의 참상」, 『매일신보』 1914년 12월 25일자.

17) 『매일신보』 1914년 12월 2일자.

18) 서춘, 앞의 글, 15면.

19) 소월, 1915, 「벨지엄의 용사」, 『학지광』 4호, 50쪽. 벨기에 침공 당시인 1914년 11월 3일 다고 표시되어 있다.

매일 전황을 보도하면서 화보도 적극 활용했던 『매일신보』를 보면 전쟁에 대한 반응이 자못 분열적이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같은 날짜 같은 면에 화보에는 ‘포탄이 何物이나 一死로 보국이다’라고 써 놓고 기사 표제는 ‘참혹하다 彈下の 笑聲’에 ‘참혹한 전장의 발광—매일 생기는 미친 군사—적군의 진 앞으로 쏘살같이—법군의 발광이 삼사만 명’ 같은 부제를 달아 전장의 공포나 수면 부족으로 발광하는 병사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형편이다.²⁰⁾ 일본이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만큼 독일을 비판하는 기사가 상당수이지만, 전쟁의 공포 자체는 4년여 동안의 기사를 일관하는 주선을 중 하나이다. 靑島 작전이 한창이었던 와중에도 ‘처참한 전후의 비극’을 강조하고 ‘전쟁보다 비참한 전쟁 뒤—들에 널린 용사의 송장—군복을 적시는 장졸의 눈물—주머니 속에 처자의 사진—연기로 사라지는 적지의 충혼’ 등의 요약어를 통해 개체의 희생을 강조한다거나²¹⁾ 평범한 침실 그림에 대해서도 ‘아—이것이 인생의 비참’이라는 제목을 단 후 어린 3남매를 남긴 채 전사한 병사의 집 풍경으로 전달하는 등²²⁾ 전쟁—죽음—공포라는 연상은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심상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진보나 평화 등 문명의 명분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정의와 평화는 “다만 저들의/ 꿈속의 농담”이며 벨기에 ‘히어로’의 죽음은 “너, 자아 이외에는,/ 야심 많은 적뿐이요,/ 패배는 너의 정부/ 약한 까닭뿐이다.”²³⁾ 부국—강병의 힘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국민 각각의 도덕적·정치적 각성을 갖춰 ‘眞善至美’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던 유럽 문명은 전쟁과 더불어 낯이 부정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자유주의를 공언했던 영국도 파업·쟁의를 금지시키는 노동강제권을 발동시키는 등 압제적 면모를 보였으며, 영국·프랑스 등의 연합국은 독일·오스트리아의 추축국보다 훨씬 우월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좀처럼 전세를 주도하

지 못했다.²⁴⁾ 정의와 평화라는 명분도, 경제력과 군사력의 결정적 권능도 전쟁을 통해 실증되지 못한다. 대신 남는 것은 파괴와 살육의 잔혹한 장면, 그것을 목격할 때의 전율뿐이다.

㉓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럽을 대상으로 한 동시대성의 감각은 전장에서 죽어가는 신체들을 보면서 싹튼다. 제1차 세계대전 초엽에 발표된 「희생」이란 글은 제1차 세계대전을 목격하는 식민지 청년의 내면 속에 ‘동시대성’ 혹은 ‘세계성’이 발아하는 장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불 한번 번쩍, 흰 연기 폴썩!/ 젊은 용사의 온 미래, 온 현재, 온 과거는,/ 다만 이 순간이러라./ 한없는 붉은 피는 사망으로 솟으며,/ 흠어진 살점은, 삼사 분이 지난 이때야 비로소/ 최후의 두려움을 맛보는 듯,/ 흐드들… 떴다!”²⁵⁾라는 시 형식의 초두를 통해 작자는 유럽의 어느 전장, 포탄 속 젊은 병사의 최후를 증언한다. 신체가 붉은 피와 더운 살점으로 조각나면서 저 먼 유럽 땅 백인 청년과 조선의 식민지 청년인 필자 사이 생명체로서의 동일성을 확인한 후, 글은 점차 조선을 초점으로 이동해 온다. 개인의 생애 속으로 들어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자애처럼 보편적일 법한 경험을 거쳐 도착하는 곳은 “소학교 체조 선생님”이 학교 온 이유를 묻고 “하나, 둘 하러 왔소”라고 답하는, 즉 학교=병식체조의 장이라 생각한 1900년대의 조선적 풍경이다(39). “일찍이 톨스토이 옹의 『전쟁과 평화』를 고성으로 대독한 적도 있었고, 또 외국인의 명저 되는 전쟁실기도 몇 번 암송한 적이 있었더라”(40)에 이르면 당대 조선 청년의 독서 경험도 암시된다. 이렇듯 조선인 청년에게 겹쳐져 있던 죽음의 형상은, 그러나 글 말미에 이르면 다시 “들 풀숲 이슬에 고기 한 덩어리!(…) 한 순간에 다 스러져 가는 용사의 말로!”라는 구절로써 유럽 전장에 되돌아간다. 1914년 8월 29일이라는 부기가 붙어 있으니 아직 연합국에 의한 조기 승전이 점쳐질 무렵이

20) 『매일신보』 1914년 12월 12일자.

21) 『매일신보』 1914년 11월 13일자.

22) 『매일신보』 1914년 11월 22일자.

23) 소월, 앞의 시, 50쪽.

24) 서춘, 앞의 글, 17쪽.

25) KY생, 1914, 「희생」, 『학지광』 3호, 38쪽.

고 일본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직후이지만²⁶⁾ 전투에 대한 흥분은 전무하다 해도 좋을 정도로 느껴지지 않는다. 다른 글을 널리 참조하더라도, 전쟁의 참상에 대한 공포를 토로한 후 “그러나 우리 남자가 한번 이 세상에 나서 칼을 들고 투쟁의 영웅이 되며 탄알 받고 자기의 의지를 실현함이 역시 남아의 일대 쾌사가 아닐는가?”²⁷⁾라고 부기한 사례나 “공격적 정신 즉 白兵主義를 實行無缺하는 자”가 승자가 되리라고 단언한 경우²⁸⁾ 등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같은 시기,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전쟁의 승패 및 그 根因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는 사실²⁹⁾과 조선 청년들이 전쟁 자체에 대한 전율을 고백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3. ‘죽음’의 고독, ‘생’의 공포

① 따져 보면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응 자체에 공포와 희망은 착잡하게 얽혀 있다. “山河를 鳴動케 하는 대포성(…) 慘絶 悲絶한 시체들” 속에서나마 선진 문명은 진보의 계단을 밟고 있는 반면 조선은 침체 일변도라는 대조³⁰⁾는 오히려 초기의 반응에 속한다. “구주 천지의 震砲雷彈은 은은한 哀聲이 수십만리를 통하여 我의 夢을 驚케 하”는 가운데서도 봄은 돌아오니, “어찌 이같이 적막하며 고통하며 고독하며 陷靜한가.”라고 탄식하는 감각은 이

26) 開戰이 확정된 것은 8월 23일이었다. 「일로양국의 국교단절과 전쟁상태」, 『매일신보』 1914년 8월 24일자.

27) 장덕수, 앞의 글, 1쪽.

28) 문희천, 1915, 「생활인가 싸움인가」, 『학지광』 5호, 37~38쪽.

29) 예컨대 이 시기 가장 활발하게 담론활동을 친 인물 중 하나인 중국의 杜亞泉은 전쟁의 경과를 보고하면서 애국심과 국민도덕이 승리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교훈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僧父, 1914, 「大戰爭與中國」, 『동방잡지』 11권 3기; 1914, 「大戰爭之所感」, 『동방잡지』 11권 4기.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세기 초 중국의 근대어와 근대지식 연표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화 연구팀' 보고서에 의한다.

30) 小星, 1915, 「학우회 망년회 스캐치」, 『학지광』 4호.

윅고 ‘충돌’과 ‘타파’를 부르짖는 선동으로 이어진다.³¹⁾ 파괴와 살육이 극한 정점에서 참회가, 전환이, 신생이 찾아오리라는 기상천외의 희망이 피력되기도 한다. “포탄이 난다./ 鎗劍이 번득인다./ 물에,/ 바다에,/ 하늘에.” “촛이 난다./ 血이 뿜다./ 물에,/ 바다에, 하늘에./”라는 전쟁의 전형적인 장면은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들의 눈이 다 빛나,/ 우리들이 다 가즉히 머물러서,/ 다 각각 ‘나’더러 가만히,/ ‘내가 무엇을 합니까’ 물으리다.”라는 참회예의 기대로, “그때 그때야말로 참 뉘우침이,/ 우리들의 가슴을 찢으리다.”라는 갱생예의 소망으로 이어지다, 마침내 그런 미래를 당겨쓰는 독특한 낙관론을 낳기도 하는 것이다. “아니, 아니 벌써, 벌써/ 저, 저 하늘가에 적은 별이 번득이오.”라고 노래하면서 “오직 이뿐! 오직 이뿐! 神의 사랑. 全人의 사랑.”을 찬미하는 시인의 의식은, 1900년대의 국가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벌거벗은 개인의 실존을 발견했던 의식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유토피아예의 의지로 전환되는 순간을 잘 보여 주고 있다.³²⁾

② 전쟁이라는 화제를 통해 공론화된 ‘죽음’이라는 계기 또한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 죽음이라는 화두는 언제라도 소멸예의 공포를 상기시키겠지만, 모범답안으로선, 조선 후기를 지배했던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보자면 죽음은 자연계의 제 현상이 생명을 거듭하는 가운데 특정한 국면에 불과했다.³³⁾ 충만한 지적 활력으로 식민지기를 살았지만 무엇보다 유학 지식인이었던 변영만은 “죽음이 없는데 죽음을 근심하는 것은 오직 소인이 하는 것”³⁴⁾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道가 이어진다면 사람 또한 죽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터이고, 개체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의 氣는 남아 천지와 소통하리라는 것이다.

31) 김철수, 1915, 「신충돌과 신타파」, 『학지광』 5호, 34쪽.

32) 流暗, 1916, 「세계의 처음」, 『학지광』 8호, 29~30쪽.

33) 차남희, 2006, 「16~7세기 주자학적 귀신관과 『천예록』의 귀신관」, 『한국정치학회보』 40권 2호, 10~11쪽.

34) 변영만,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2006, 「죽음이란」, 『변영만전집』 상, 성균관대 출판부, 91쪽.

“내가 노래하며 세상을 떠나면 그 韻響이 봄바람에 전해질 것이요, 내가 성내고 땅속에 묻히면 그 남은 독기가 독수리의 발톱에 매어 있을 것이다. 산이 팔짱을 끼듯 서 있는 것은 내가 공손하고 말이 적은 모습이며, 바다가 물결치고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것은 내가 날아 솟구치는 것이다.” 자연의 항구성과 道의 불변성이 ‘나’를 보장하는 한 죽음은 공포나 혐오로써 맞을 대상이 아니다. 죽음이 공개되는 사건이자 친숙한 경험이었다는 유럽의 사례 또한 비슷한 역사를 증명하지만³⁵⁾ 사회적 측면에서 보자면 가족제도와 촌락질서의 관계망 속에서 죽음은 고립된 사건이라기보다 공동체적 경험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래 화이론적 세계인식이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내/외 사이 간격, 공동체 내부에서의 안정성 역시 동요하기 시작한다. 전통과의 연결을 중시하는 시각에서 보자면, 조선 후기 활발하게 제창된 역외춘추론이나 人物均說 등에서 함축되었던 사상이 비로소 일반화되었다고 평할 수도 있을 것이다.³⁶⁾ 중세적 세계인식이 붕괴되기 시작한 후 이미 십수년을 경과했으나, 일찍이 1900년대에는 강력한 국가주의가 시대를 이끌었던 까닭에, 오랜 공동체를 잃었다는 상실의 감정이 주류를 형성하지는 않았다. 국가가 예전의 어떤 정체성보다 강력하게 개체들을 견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1910년대, 신분과 지역이라는 분할이 약화되고 뒤섞인 위에³⁷⁾ 국가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고립된 개인으로서 세계와 마주 대한다는 것이 점차 보편적인 경험으로 자리나고 있었다. 고향과 도시 사이 공간적 거리의 축소와 시간적 거리의 확대 때문에 1910년대의 청년들은 더더욱 분열증적 상태에 몰린다. 도시 공간은 공동체적 유대를 박탈하고 고립을 강요했지만, 고향은 또한 “이와 같은 패잔”, “이와 같은 침체” 로만 조망되는 것이다.³⁸⁾

35) P. Ariès, 2004, 『죽음 앞의 인간』, 고선일 옮김, 새물결, 63~74쪽.

36) 박희병, 2002, 「淺見綱齋와 홍대용—중화적 화이론의 해체양상과 그 의미」, 『대동문화연구』 40호, 396~397쪽 참조.

37)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에서의 같은 추이에 대해서는 S. Kern, 2004,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 박성관 옮김, 휴머니스트, 471쪽 참조.

38) 주요한, 1917, 「마을집」, 『청춘』 11호, 55쪽.

이 공백, 개체의 혼과 생명을 지탱했던 공동체와 국가가 모두 휘발된 1910년대에, 개체는 저마다의 생물학적 실존을 움켜쥐고 홀로 남겨진다. 당연히 ‘죽음’을 화두로 한 1910년대의 문학 텍스트는 적지 않다.³⁹⁾ 장티푸스에 걸려 숨진 친구의 사연이나(현상윤, 「박명」, 『청춘』 3호, 1914. 12), 층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숙집 여주인의 죽음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주인공(진학문, 「부르짖음」, 『학지광』 12호, 1917)이 대표적이지만, 『태서문예신보』에 롱펠로우의 시 「무덤」이나 안낙크레온이라는 시인의 시 「죽음의 공포」가 번역된 것을 보면 번역이라는 원천을 통해서도 ‘죽음’이라는 주제가 적잖은 흥미를 끌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변화하고 있는 세계에서 새로 발견된 죽음은 무엇보다 고통스럽고 허망하다. 「부르짖음」은 6개월 동안 복막염을 앓아 온 여주인이 숨을 거두는 날, 그 마지막 밤을 묘사한다. 이날 화자 순범을 찾아온 친구 林은 믿어 왔던 사랑과 우정에 동시에 잃었다고 탄식하고, 고국에서는 오랜 벗이 죽었다는 전보가 날아든다. 친구의 죽음을 통지받았을 때부터 “아무의 낙도 없고 아무 빛도 없는 그의 단조한, 고적한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회의하면서 삶이란 긴 침묵 속 짧은 부르짖음, 깊은 어둠 속 잠깐 스친 빛과 같다고 느끼고 있던 화자는 침묵-어둠과 죽음을 동일시한다. “나도 얼마 아니 있다가, 그 측량할 수 없는, 무서운, 캄캄한 어둠 속에 빠지겠고나! 찬, 얼음과 같이 찬, 한없는, 긴 침묵에게 삼켜지겠고나!”(59). 그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여주인은 도둑이 도망간다는 헛소리를 내지른다. “터러운 돈과 거짓 사랑”—연약한 부르짖음이요 찰나의 불빛에 불과한 생에서 기껏 남기는 것이 돈과 애욕에 대한 집착에 불과하단 말인가? “지금까지 해 내려온 생활의 심볼”을 보는 듯 화자는 더욱 두려움에 떠난다. 짧고 허망한 생애도, 그 생애에서 어떤 의미나 가치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도 가꿀 만한 발견이다. 이러한 발견을 추구했던 죽음이라는 운명 혹은 환경은 “습하고, 누른, 숨이 막힐

39) 소설 양식에서 ‘죽음’이 주제화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영아, 2005, 「1910년대 유학생 단편소설에 나타난 죽음의식」, 『국어국문학』 141호를 참조할 수 있다.

듯한” 안개 낀 밤으로 환치된다.⁴⁰⁾

1920년대로 접어들 무렵이 되면 이렇듯 두려웠던 죽음의 형상이 뜻밖에 다소 완화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벗의 죽음」(박석윤, 『학지광』 20호, 1920. 7)이나 「이동화의 죽음」(김준연, 『학지광』 22호, 1921. 6)에서 젊은이들은 병마에 쓰러지고 부모의 몰이해 때문에 자살하지만, 그들의 생은 “우주와 더불어 무궁히” 남을 자취로, 죽음은 “그 후에 몇 新人을 분기시킬” 단초로 기념된다. 『개척자』(1917~18)에서 성순의 장엄한 최후가 보여 주듯 죽음은 이제 마땅한 유산을 남긴다. 물론 죽음을 자연주의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이 등장해 「K와 그 어머니의 죽음」(전영택, 1921)이나 「감자」(김동인, 1925) 등의 목록을 형성하지만, 여기 이르면 화자와 죽음 사이의 거리는 여러 층 떨어져 있다. 1910년대의 화자처럼 바로 앞에 맞닥뜨린 죽음의 얼굴에 눌러 버린 화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죽음이 불가해하고 부조리한 절대적 경험이라는 사고는 1910년대 중·후반에 가장 압축된 문학적 언어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정’이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없는 개체의 비애와 고독이라는 관념도 같은 시기에 널리 표현된다.

㉓ 참된 동정이 최고의 자선이라는 요지로 정리될 법한 투르게네프의 산문시 「결인」이 몇 번이나 번역되고 야류작까지 낳은 시절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랑의 일방성과 허구성을 모파한 같은 작가의 단편 「밀회」도 『태서문예신보』 『삼광』 『생장』 지면에 반복해 게재되었다. 모파상의 수상 「고독」이 『태서문예신보』 『창조』에 실리고 러시아 작가 솔로구쁘가 『태서문예신보』 발간 내내 지면을 장식한 데서 알 수 있듯, 생의 고독과 비애와 허무는 1910년대를 길게 지배한 정념이다. 솔로구쁘의 예를 통해 보자면, ‘생의 공포’가 지배하는 가운데 작가는 세계란 냄새 나는 동물원에 불과하며 인간은 우리에게 갇힌 수인이라는 nihil한 결론에 이른다. “생! 나는 원치 아니하노라. 다만 이

40) 瞬星, 1917, 「부르짖음(Cry)」, 『학지광』 12호, 57쪽.

를 없이지 않을 뿐.”이라는 데서 보이듯 ‘생의 공포’는 죽음의 공포 못지않게 크다. 임노월에 의해서라면 솔로구쁘는 『작은 악마』의 작가로, 악마주의의 일파로 분류되지만⁴¹⁾ 김억에 의해 최초로 소개될 당시에는 공포와 염세가 한결 중요한 색채였다. 삶의 무의미와 부조리, 혹은 고독과 비애—그 심상은 암흑과 냉기로 상징된다. “생존의 무서운 고통은 우리가 영원히 고독이라는 데서 생긴다.”⁴²⁾거나 “내 재산의 전부는 고통과 비애”라는 등의 발상이⁴³⁾ “나는 氷세계에서 생활하노라(…) 사막을 여행하노라.”⁴⁴⁾로 재진술되곤 하는 것이다. 죽음이 위안과 동경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때, 암흑·氷世界·사막 한복판에서이다. “하루바빠, 저—리로, 광명한 곳으로, 가는 것이, 나에게는… 나에게는, 더 즐거워요… 나의, 그리운 곳은, 저—기 저곳뿐이에요…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더 있을수록… 더 많은 괴롭밖에… 나는, 저—리로!”⁴⁵⁾—연애 갈등과 신경쇠약 끝에 자살하는 주인공은 부르짖고, “아름다운 끝인/ ‘죽음’을 부르면서 시인은 “‘생’은 보기 싫은 희극/ ‘사’는 아름다운 비극/ ‘생’은 필력이는 초사불/ ‘死’는 빛나는 금강석”이라는 대구를 노래한다.⁴⁶⁾

죽음도 공포스럽지만 생은 더욱 그러하다는 이 지점에 이르면, 죽음이 위안이자 일종의 美로 고양되는 동시, 전쟁을 통해 자라난 비관이 삶의 일반적 감각으로까지 자리 잡는다. “과거는 醜汚, 타락, 공포, 고통, 비애, 고독이었으니 장차 오려는 미래도 또한 이런 것이리라마는(…)”⁴⁷⁾ “인생은(…) 허위와, 공포와, 교만과, 싸움과, 울음에 싸여서, 캄캄한 죽음 속으로 다투어 이끌

41) 임노월, 2005, 「예술지상주의의 신자연관」, 박정수 편저, 『춘희(외)』, 범우출판사, 258~260쪽.

42) G. de Maupassant, 億生 옮김, 1919, 「고독」, 『태서문예신보』 14호(1월 13일자).

43) 이일, 1918, 「해안의 고독」, 『태서문예신보』 7호(11월 16일자).

44) 南星, 1919, 「K, S 양형에게」, 『학지광』 17호, 76쪽.

45) 극옹(최승만), 1919, 「황혼」, 『창조』 1호, 19쪽.

46) 주요한, 1920, 「생과 사」, 『창조』 7호, 3쪽.

47) 돌샘, 1915, 「내 의 가슴」, 『학지광』 4호, 47쪽.

려가다.”⁴⁸⁾—인용문의 표현마따나 ‘공포, 고통, 비애’라 이름붙임직한 이 새로운 심리는 청년 학생층 전반을 장악하지는 못했을지언정 일부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고, 민족주의와 지도자의식이 버티는 한편에서 개인과 내면에 대한 관심이 자리 잡게끔 했다. 이 지점에서 보면 무한대로 확산된 시·공간은 무미한 연장이요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문명론적 진보의 관념이 사라진 자리에 이 시·공간 개념은 썩 적절해 보이기마저 한다. 그러나 ‘죽음’이 문학적 주제의 핵심이 된 순간, 개체들이 저마다의 자유와 공허 속에서 씨름해야 했던 시절은 근대 한국에서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 신생애의 의지와 공동체적 감성, 개조에의 의지가 바로 자라나기 때문이다.

4. 자연과 생명, 무한의 공간과 반복되는 시간

① 제1차 세계대전은 조선이 세계와 대등하게 만날 수 있게 된 사건이다. 19세기 말 이래 유럽은 문명론적 위계로 구획되어 있는 저 너머의 세계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그 자체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내면서 동등한 타자의 위치로 내려왔다. 처음이라면 문명론적 위계의 붕괴가 당혹과 혼란 속에 경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진의 입장에서 선진을 추적하면 된다는, 어찌 보면 간단했던 인식-실천론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이미 1910년의 강점으로 개체의 사회성을 담지할 국가 주체를 상실해 버린 조선 청년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러 주체의 좌표 자체를 잃게 되었다. 개인적인 이력을 회상하면서의 일이지는 하지만, 1910년대 중반 현상윤은 일찍이 쌓았던 지식이 모두 무용해져 버렸다는 허탈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15세 되었을 때에 옳다고 인정하였던 것은 20세 되었을 때에 아니라 부인하였더니

20세 되었을 때에 옳다고 허하였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 또 아니로구나.”⁴⁹⁾ ‘지식의 사람’보다 ‘인격의 사람’을 갈망하게 되었다는 이 맥락은 지식-기술-부강의 증진이 先進을 구성한다는 믿음이 무너진 상황에 적절히 조응한다.

확실히 “구주대전란은 현대문명의 어떤 결함을 폭로한 것”이었다. 국가의 문제, 경제조직의 문제, 법과 도덕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열거되는 가운데⁵⁰⁾ 모방해야 할 선진적 사례였던 유럽의 위상은 몰락한다. 이미 십수 년째 경험해 온 근대 문명에 대한 회의와 겹쳐, 기계와 물질문명 일반에 대한 염오가 일기도 한다. 거대한 공장에 찬탄하는 대신 “저러한 것이 있는 까닭에 노동으로 인하여 나오는 잉여가치가 자본가의 독점물이 되고 만다(…) 기계는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다. 결코 사람이 기계를 위해서 생긴 것은 아니다.”⁵¹⁾라는 비판적 시선을 던지고, “‘톨스토이’와 ‘타골’의 냄새를 섞어 비평”하되 “현대 문명의 진화 발달이 인생의 육체 정신의 피로 困憊와 정비례한다”고 공격하는 반응은 1910년대 중·후반에 빠르게 확산되어 갔다. 1900년대 말에 한 차례 유행했던 톨스토이가 재생하진 못했으나 타골이 ‘개인과 우주 간의 조화’를 설파한 인도 문명이 낳은 시인으로 각광받은 것⁵²⁾은 이렇듯 근대 문명 일반이 의심받게 된 상황 속에서이다. 자연과 우주라는 관념은 이 상황 속에서 다시금 주체의 좌표를 찾으려는 노력 속에서 조형되기 시작한다.

② “창천에 별들은 의연히 반짝이고 드을에 강물은 줄곧 흐른다.” 고금 이래로 변치 않는 이 환경은, 1910년대라면 시간의 무한 반복을 증명하는 현기증 나는 증거가 된다. 연말이면 울리는 제야의 종소리는 “공연히 눈물”

48) 김찬영, 1915, 「프리」, 『학지광』 4호, 47쪽.

49) 小星, 1915, 「비오는 저녁」, 『학지광』 5호, 58쪽.

50) 이광수, 1917, 「우리의 이상」, 『학지광』 14호, 5쪽.

51) 새별, 1920, 「생의 비애」, 『창조』 5호, 52쪽.

52) R. Tagore, 「개인과의 우주의 관계」, 『근대사조』 1호.

을 자아내고, “아— 과연 인생은 짜르고 우주는 不窮하고나.”라는 탄식이 잇따른다.⁵³⁾ “타임의 바퀴는 쉬지 않고 운전”⁵⁴⁾하며 그 속에서 인간이란 무려한 존재일 따름이다. 문명론적 위계의 붕괴는 개체를 무한한 시·공간 속에 풀어놓았다. 앞서 보았던 현상윤의 수상 「비오는 저녁」에서 지식의 진보에 대한 회의가 규칙적인 시계소리에 의해 자극되듯, 선진 문명=미래의 우월한 존재, 조선=과거의 열등한 존재로 서열화시켰던 인식론이 무너지면서 시간은 의미 없는 규칙적 리듬이 되고, 공간은 경계 없는 무한대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타임의 바퀴는 쉬지 아니하고 운전한다./ ‘살지 아니하면 아니된다!’”⁵⁵⁾라거나 “아—, 끝없는 공간과 한없는 시간 사이의 사람의 생명! 바람에 흔들리는 적은 불꽃이 점점 엷어지다가 그만 깜박 꺼져버리고 마는 썸이로고나!”⁵⁶⁾ 같은 구절은 이 인식론적 결절의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문명의 위계가 사라짐에 따라 주체 사이의 위계 역시 사라진 만큼, ‘삶’과 ‘생명’의 절박한 실존성만이 신뢰할 만한 토대로 남는다. 마치 제1차 세계대전의 전장을 보면서 ‘죽음’을 통해 유럽의 젊은 병사에 공감할 수 있었듯, 위계가 사라진 내재성의 장 속에서 식민지의 청년들은 ‘생명’의 보편적 가치를 발견한다.

눈보라치는 밤, 개와 단 둘이 한 방에 마주앉아 보니 “우리는 동류이다.” 거센 바람 소리에 소스라치며 죽음을 연상할 때,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같은 생명이라는 것이 무서움에 떨며, 서로 가까워”진다.⁵⁷⁾ 위계가 흔들리면서 인간과 자연 사이 정복-피정복의 관계도 도전받는다. 인생이 불행·모순으로 가득찬 데 비해 자연은 위대한 자유의 행복을 현시한다는 관습적 대비가 가장 흔하게 눈에 띄는 가운데⁵⁸⁾ 생명의 보편성을 식물에까지 연장시켜 “저

화초와 ‘나’는 동일 선조를 가지었다.”⁵⁹⁾고 하거나 혹은 자연 앞에 외경을 느끼면서 “우리의 전 생애는/ 오로지 자연의 거느림 밑이로구나!”⁶⁰⁾라고, “아— 나를 둘러싼 자연아— 아— 나를 지배하는 나의 운명의 신아!”⁶¹⁾라고 탄식하는 장면도 드물지 않게 목격된다. 마지막 사례의 경우 자연은 친숙성을 넘어서 낯선 존재로까지 상승된다. 자연은 선뿐 아니라 악에도 관여하며⁶²⁾ 주체를 압도하는 숭고미를 발휘하기도 한다. 오스카 와일드의 선례를 따라 자연에 적대적 태도를 섞어 보였던 김동인 같은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자연은 친숙한 조화의 대상이 되는 동시 시·공간적 연속성을 통해 인간을 압도해 온다. 『창조』와 『개벽』을 통해 소개되었던 투르게네프의 산문시 「會話」에서 나오듯, 알프스의 거봉이 헤아리는 시·공간의 척도 속에서 인간은 ‘벌레’, ‘兩足동물’에 불과한 것이다.⁶³⁾

“우리는 우주의 적은 일부분 위에 生息하는 또 적은 일부분에 지나지 못” 한다는 의식⁶⁴⁾도 자연에 대한 開眼과 궤를 함께하는 변화이다. 이때 ‘자연’과 ‘우주’는 유의어에 가까운데, 다만 ‘우주’가 천체론적 규모를 전제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상식적 개념 수준에서라면 전근대의 ‘우주’란 천지사방·古往今來를 의미했고 오늘날 우주여행이나 우주과학 같은 단어에서 볼 수 있는 대기권 외 공간이란 의미는 없었지만⁶⁵⁾ 1910년대의 ‘우주’는 지구 너머의 무한한 천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주가 “혹알 천지와 동일한 의미라 하나 결코 불연하”다고 쓴 논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소위 창공과 지구를 并謂”하는 말로 “望하여도 際涯가 無하고(…) 去하여도

53) 秋湖, 1917, 「나의 단편: 일기에서」, 『학지광』 12호, 55쪽.

54) 돌샘, 앞의 글, 47쪽.

55) 돌샘, 1915, 「나의 가슴」, 『학지광』 5호, 47쪽.

56) 늘봄, 1920, 「생명의 봄」, 『창조』 7호, 11쪽.

57) I. Turgenev, 안서생 역, 1918, 「로서아의 시단(산문시)」, 『태서문예신보』 5호(11월 2일자).

58) CK생, 1915, 「프리」, 『학지광』 4호, 47쪽.

59) 김윤경, 1918, 「인천원죽기」, 『청춘』 15호, 78쪽.

60) 돌매, 1914, 「자연」, 『청춘』 3호, 101쪽.

61) 白野生, 1920, 「1년 후」, 『창조』 5호, 65쪽.

62) 이일, 1918, 「만추의 적막」, 『태서문예신보』 9호(11월 30일자); 백야생, 위의 글, 69쪽.

63) 투르게네프, 안서 역, 1921, 「투르게네프 산문시」, 『창조』 9호, 92쪽.

64) 이광수, 「여의 자각한 인생」, 18면.

65) 惣郷正明·飛田良文, 1996, 『明治のことは辭典』, 東京堂出版, 25쪽.

地接할 때가 無⁶⁶⁾한 이 우주는 자연과학적 지식에 힘입어 암흑과 냉기로도 감각된다. “철학적 사색으로써 견하면 인류 사회도 亦 무한한 시간을 통하여 무한한 공간에 긍하는 우주의 일 현상에 불과하니⁶⁷⁾ 같은 표현에서 보이듯 시·공간의 무한성이 명료하게 인지되는 것은 ‘우주’를 통해서이며, 내면과 세계가 동등하게 “감감한 비밀”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도 ‘우주’의 상상을 통해서이다.⁶⁸⁾ 神과 종교라는 매개를 발견하는 데도 ‘우주’가 한층 설득력 있는 대상이다. “우주적 실재가 我를 관통하니 나는 진실로 신의 일부”라는 인식을 통해 자아-우주-신을 연결짓는 에머슨의 범신론은 내면의 무한성과 神-우주의 무한성을 적절히 대응시키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 시기 동학-천도교는 向我設位法에서 보이듯 개별 주체 속에 천지만물을 겹쳐 보는 인식론을 대중화시키고⁶⁹⁾ 일본 내 신칸트학파의 조우를 통해 범신론적 색채를 강화시켜 가고 있었다. “이-터(Ether)의 스미인 곳에 어느 곳에 너의 곳 아님이 있겠느냐?”⁷⁰⁾라는 구절에서 보이듯 發光性 媒質로 가상된 에테르⁷¹⁾가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인식이 재래 유학의 氣論을 대체해 가던 시절이기도 하다.⁷²⁾

66) 天痴生, 1915, 「우주의 大함도 합하면 일체를 成함」, 『신문계』 31호, 37쪽.

67) 이응섭, 「사회의 이상」, 『매일신보』 1916년 6월 22일자.

68) CK생, 1915, 「프리」, 『학지광』 4호, 47쪽.

69) 「사자문답」, 1910, 『천도교회월보』 3호, 24쪽. 자기 자신을 향해 제사상을 배설하는 ‘향아설위법’은 본래 1897년 최시형이 제창한 것이다.

70) 五峯生, 1915, 「신년의 노래」, 『학지광』 4호, 48쪽.

71) S. Kern, 앞의 책, 58~60쪽.

72) 무술정변 당시 목숨을 잃었던 중국의 譚嗣同은 ‘天地人이 합해 내가 되는’, 보이지도 않고 맛도 냄새도 소리도 없으며 세계에 충만한 ‘에테르以太’를 ‘仁’과 동일시하기도 했다(蔡尙思·方行 編, 1981, 『以太說』, 『譚嗣同全集』, 북경: 중화서국, 433~434쪽).

5. 생명과 인격, 신생과 개조의 길

① 공허한 우주와 의미 없이 반복되는 시간—이미 1900년대의 천체론이나 생물학적 지식 속에 잠재되어 있었고 1910년 이후 확연히 부각된 이 환경이 ‘세계’와 ‘역사’로 종착된 과정이 곧 1910년대를 통해 현실화된 인식론적 변모의 중요한 줄기라 할 수 있다. 범신론적·물활론적 우주의 관념이 이 변모를 도왔고, ‘세계’와 ‘인류’의 일원론적 지평이 공간과 주체를 마련했으며⁷³⁾ 인류 차원 단일한 역사라는 개념이 실천의 새로운 차원을 확정지었다. “우주는 개체의 단위로부터 조직되었고, 개체는 개성의 특수한 것으로 조직된 바⁷⁴⁾라거나 “우주의 근본자는 一切處에 遍在한 절대 무한의 생명력인 줄을 깊이 믿⁷⁵⁾”는다는 등은 이 단계에서 우주론의 변화를 잘 보여 주는 진술들이다. 시간의 차원에서라면, 이미 1900년대에 “역사는 원래 진보하는 것이요 퇴보하는 것이 아님⁷⁶⁾ 같은 구절이 드물게나마 눈에 띄지만, 당시로서는 진보·발전의 논리가 충분히 구체화되기 못했고 심지어 과거를 이상화하고 현재를 평가절하하는 태도가 보편적이기마저 했기 때문에⁷⁷⁾ ‘역사’라는 개념이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1910년대를 기다려야 했다.

이 시기, 조선이 식민지라는 새로운 현실 앞에 당혹해 하고 있을 때 일본 역시 ‘겨울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시사적이다. 메이지기 끝무렵인 1911년에 있었던 대역사건은 현실에 대한 관심을 얼어붙게 했고, 마침 정치·경제의 안정과 더불어 부상하고 있던 개성과 내면 쪽으로 대중의 시

73) 중국의 경우 ‘천하’나 ‘만국’에서 ‘세계’로 이동하는 과정을 주목할 수 있다(金觀濤·劉青峰, 2010, 『관념사란 무엇인가』 2, 양일모·송인재·한지은·강중기·이상돈 옮김, 푸른역사, 254쪽).

74) 최승구, 1915, 「너를 혁명하라」, 『학지광』 5호, 15쪽.

75) 장덕수, 1915, 「의지의 약동」, 『학지광』 5호, 44쪽.

76) 『대한매일신보』 1909년 8월 11일자.

77) 박태호, 2007, 『『대한매일신보』에서 역사적 시간의 개념』, 고미숙 외, 『근대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실적 심화』, 소명출판, 161쪽.

선을 이동시켰다. 제1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이 누렸던 호황 및 국제적 지위 상승은 이런 이동에 친척성의 색채를 부여하기마져 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혹은 다이쇼 교양주의라고 불리는 일련의 변화는 지식·사상·문화의 개화를, 또한 여성과 노동자 같은 소수자들의 약진을 아울러기 때문이다. 사회와 현실에서 관심을 돌려 '자기를 內觀하는 번민시대'를 열었던 이 변화에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위축과 공포의 감각이 스며들어 있다. 후지무라 미사오(藤村操)의 '철학적 자살'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內省의 시대'로의 전환을 알린 것이 이미 1905년의 일이었음에도, 대역사건으로 인한 이념적 경색은 전환의 자생성을 훼손하고 내면이 일종의 도피처일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것이다.⁷⁸⁾

식민지 조선에서라면 '내면'과 '영혼'에 착안케 된 동기는 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면'이 촉진할 법한 개인성이 시민사회의 질서를 향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기에 '내면'과 '영혼'은 자칫 패배의 언어, 수동태의 언어가 되기 쉬웠다. 에머슨의 자아, 자기-의존적 인간형(self-reliable man)에 대해서도 당시 대두하고 있던 객식 민주주의와의 타협이 아니냐는 해석이 빈번히 제기되곤 하거니와⁷⁹⁾ 일체의 도덕을 무시해서라도 자기-자아를 구해야 한다는 1910년대 중·후반의 논설들은 유아론적 자기중심주의를 향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물론 유아론은 응축될 경우 일체의 공리성이나 사회성에 저항할 만한 폭발력을 지니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에서 이 방향은 거의 현실화되지 못했다. 김동인이나 후일의 이상 정도가 가장 가까운 사례라 할 수 있을 터인데, 어쩌면 唯我論의 결여를 애석히 여겨야 할 정도로 자아-내면-영혼에의 요구는 다른 길로 편향되어 갔기 때문이다.

㉒ 제1차 세계대전과의 관련을 먼저 검토한다면, '구세계의 몰락'이라는

78) 西川祐子, 2009, 『日記をつづるということ』, 吉川弘文館, 6장 참조.

79) J. C. Rowe, 앞의 글.

실감에 이어 '신세계의 탄생'이 현실적 근거를 얻기 시작했다는 사정을 들 수 있겠다. 1917년 소비에트 러시아의 성립이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거니와, 러시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라는 양대 제국이 무너진 것만으로도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공산주의의 실험이 개시된 가운데 동유럽에서는 식민지였던 체코슬로바키아·유고슬라비아·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가 잇따라 독립했고, 패전국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帝政이 붕괴하면서 공화정이라는 새로운 정체가 도입되었다. 역시 패전국인 오스만제국이 터키공화국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이슬람지역에 있어서도 대대적 재편성이 이루어졌다. 계급 상황에서의 유희 국면도 등장해 8시간 노동제가 명문화되는가 하면 15세 이하 유소년 노동이 금지되었고, 영국에서는 3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참정권이 부여되었다.⁸⁰⁾ 물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대대적인 반 오스만 봉기에 나섰던 이슬람 지역 중 대부분이 영국·프랑스에 의한 위임통치라는 새로운 굴욕 앞에 굴복해야 했던 데서 보듯, '구세계'의 질서는 쉽게 포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제1차 세계대전이 옛 유럽의 종말을 촉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1921~23년에 걸쳐 전후 세계 재조정이 마무리되기까지, '개조와 '신생'에의 기대는 뜨거웠다.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라면 1921년 말의 워싱턴회의가 실망만을 안겨 준 채 '흡혈귀의 동맹'으로 끝나고 그 여파가 대중적으로 확산될 때까지⁸¹⁾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 초반에 이르는 몇 년간은 '구세계'의 종말과 '신세계'의 탄생에 대한 희망이 지배한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항의 속증은 이것을 가리켜 가로되, 세계는 개조되었다, 인류는 영원한 '유-토피아' 화단 아래에 木枕을 높이 괴고 잘 수 있다고, 떠든다."⁸²⁾ 가파른 물가상승이나 세금의 압박, 미곡 소

80) 서재만, 1996, 「제1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의 대아랍 전후처리에 대한 연구」, 『중동연구』 15권 2호 참조.

81) 1920년 8월의 미국 의회의원단 방문에 이어 워싱턴회의에 대한 기대 역시 무위로 끝난 정황에 대해서는 전상숙, 2004,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 민족지도자들의 대외인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호, 322~324쪽 참조.

82) 염상섭, 1920, 「이중해방」, 『삼광』 3호, 3쪽.

동과 인플루엔자의 살인적인 유행에서 보이듯 1910년대 후반 대중의 생활은 참담했으나, 그 종말론적 정황을 뚫고 ‘구세계’의 종말, ‘신세계’의 탄생이 환각이자 현실로서 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프로이트가 신경질적으로 조롱했던 월슨의 이상주의, 그것은 1910년대 후반~1920년대 초반의 역사에서 거의 현실처럼 보였고, 드물게나마 현실이 되었으며, 현실이 되려는 움직임이 추동해 냈다. 무한을 향한 전진운동—“항상 치어다만 보고, 내려다보지는 말”아야 한다는 다짐이 개인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⁸³⁾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힘입어서였으며, “빈에서 부로— 부에서 더 부로, 약에서 강으로— 강에서 더 강으로”를 부르짖은 힘에의 의지가 개인과 민족뿐 아니라 더 큰 “전체의 미”까지 목표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생과 개조에의 희망이 무르익었던 이 예외적 상황 속에서였다.

㉓ 이 시절 유행한 ‘생명’이라는 단어는 ‘자아’의 관습적 장벽을 돌파하는 힘을 발휘했다. ‘자기’나 ‘자아’가 개인적 이익추구라는 근대 시민사회의 원리로 연결될 수 있었다면 ‘생명’은 개체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설득시켰다. 합리주의나 공리주의를 반성하는 효과를 발휘하여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에 합류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다이쇼기의 생명사상은 예술론, 여성해방론, 자유성애론, 범신론적 종교론 등으로 전개되었다고 정리되는데⁸⁴⁾ 조선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며, 영원한 빛”으로 요약된 ‘생명’⁸⁵⁾은 내면과 우주에 공통된 암흑-냉기와 맞서는 도구일 수 있었고, ‘비에를 지닌 채 전진해야 한다는 역설적 명제 속에 고립-비에와 무한성에의 투신이라는 모순되는 경험을 융합시킬 것을 시도할 수 있었다. ‘생명’만큼 급진적인 방식은 아니었다고 생각되나, ‘인격’ 개념 또한 근

대 문명 비판의 근거가 되는 한편으로 개인과 사회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사회를 위해서는 쓰나 다나 해야지.”라는 견해와 “자기라는 ‘제 스스로’를 너무 그렇게 몰시해서는 아니되겠지.”라는 입장을 대립시킨 희곡의 설정이 암시하듯이⁸⁶⁾ 혹은 『기독교청년』을 통해 진행된 현상윤과 염상섭 사이 논쟁이나 사회지상주의 대 개인지상주의라는 가상적 대립을 통해 목격되듯⁸⁷⁾ 1910년대 말에 이르면 자아-내면-영혼의 담론은 어쩔 수 없이 사회 담론과의 부분적 충돌을 야기하기에 이르는데, ‘인격’은 그 간격을 조정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인격은 개인을 실현하는 동시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종합의 명제로 이해되었으며⁸⁸⁾ “가문이나 계급 본위의 정치에서 인격 본위의 정치로! 국가 본위의 국가생활에서 인격 본위의 국가생활로! 인습이나 관습 본위의 도덕에서 인격 본위의 도덕으로!”⁸⁹⁾ 같은 구절에서 보이듯 사회의 합리적 재편을 요구하는 언어로 활용되기도 했다.

물론 ‘인격’이 빅토리아시대의 보수주의적 도덕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는 없겠다. 『자조론』으로 明治 일본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던 스마일즈의 또 다른 저작 『인격론』이 보여 주듯, ‘인격(character)’이란 제도적 개혁이나 사회적 성취를 부차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했으며, 근면·자제·의무의 윤리를 강조하기도 했다.⁹⁰⁾ 제1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바로 그 세계, 빅토리아시대 영국으로 상징되는 옛 유럽이 ‘인격’이라는 단어에는 숨어 있다. 그런 만큼 ‘생명’의 급진성이 ‘인격’이라는 개념에서 보존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당연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스마일즈의 『인격론』이 제도화된 강국주의나 경직된 신분주의를 부분 비판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듯, ‘인격’은 ‘생명’을 부정하는 동시에 그 혁신적 효과 중 일부를 섭취하는 방식으로

83) 「(에디토리얼) 大我— 3. 인격」, 『태서문예신보』 11호, 1918년 12월 14일자.

84) 鈴木貞美, 1995, 「大正生命主義研究のいま」, 鈴木貞美 編, 『大正生命主義と現代』, 河出書房, 8, 11쪽.

85) 億生, 「가난한 벗에게」, 『태서문예신보』 16호, 1919년 2월 17일자.

86) 『창조』 1호(1919. 2).

87) 雪山, 1917, 「사회와 개인」, 『학지광』 13호, 11~13쪽.

88) 負朝陽, 1921, 「何以謂之至善也」, 『학지광』 21호.

89) 편집인, 1921, 「인격 본위의 생활」, 『학지광』 21호.

90) S. Smiles, 2005, 『인격론』, 정준희 옮김, 21세기북스.

성립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개조’의 분위기나 3·1 운동의 현장에서라면 ‘생명’이라는 개념의 직·간접적 효과가 훨씬 컸겠지만, ‘인격’은 이후 1920~30년대 전반을 통해 민족적·계급적 점진주의를 목표로 할 때라면 언 제라도 소환될 수 있었던 개념으로 자리 잡아 갔던 것이다.

6. 세계성-보편성의 감각

①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세계사적 동시성과 무한성의 감각이 함께 깨 어난 것을 두고 이광수는 “정치, 경제, 과학, 철학, 문학, 예술, 사상 모든 것 이 우리 앞에 놓였”다고 진단한다. 나아가 “20세기 이후의 문화의 종주권은 아라사족에 돌아가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아세아민족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점치기도 한다.⁹¹⁾ 이광수 스스로는 그 현실적 출발점으로 ‘문화’를 꼽았다. 일찍이 “애국주의에 정박”했으나 “큰 사막이나 넓은 해양에서 轉輾하거나 표류하는 외로운 사람”으로서 코스모폴리탄적 가상에 익숙했던⁹²⁾ 이광수로 선 ‘인류’를 단위로 한 ‘역사적 진보 자체보다 그 진보를 선도하는 자리에 선다는 사실이 중요했는지 모른다. 여전히 정치·경제·사회의 현실을 경유 해야 했던 여타의 실천에 비해 문학과 예술은 훨씬 직접적으로 ‘세계’의 최 전선에 설 수 있을 듯 보였던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중앙집권화되어 있던 권력이 독립적·자치적인 공동체에 할양되고 왕조 체제가 민주적 사회 로 이행하는 동시 문화적 권위 또한 분산되고 있을 무렵⁹³⁾ “문학의 천지는 자유의 천지라”는 목소리는 확실히 설득력 높은 것이었다. “예술과의 남구 문학도 가하며, 인생과의 북구문학도 가하며, 절충과의 영미문학도 가하며

잡종과의 일본문학도 가하니 차를 수입지, 역술지, 저작지, 소화지” 하자는 제안은 경박하고 어지럽지만,⁹⁴⁾ 문학을 경유한다면 막 열리기 시작한 세계 사적 동시성의 장에 재빠르게 참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만은 인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광수가 2·8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데서 보듯, 3·1 운 동에 이르기까지 이 문화론적 야심은 ‘인류’의 ‘역사’를 겨냥한 목적의식과 공존할 수 있었던 듯 보인다. 그러나 3·1 운동 이후로 시·공간적 무한성은 다시 세분되고, ‘인류’와 ‘역사’ 또한 분류의 지(知)를 수반케 된다.

② 이 글은 직접적으로는 한국 근대문학의 기원이라 할 만한 장면 중 하나 를 다루었지만, 보다 넓게는 3·1 운동의 정신사적 배경을 해명하려는 기도 에 닿아 있다. 1910년대, 갈등과 모순 속에서 근대적인 ‘무한성의 감각’이 배 태되는 양상을 살피려는 것이 이 글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시·공간의 무한 한 팽창, 그 안에서 이루어진 주체의 위치 조정이 1910년대 말~1920년대 초 에 있어 문화와 정치의 기본 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3·1 운동의 시 발에 중요한 자극이 되었으며, 아직까지 꾸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이다. 이 과정은 단일한 주체로서의 ‘인류’와 그 서사로서의 ‘역사’를 발견하 는 데서 일단락되는데, 문학의 기원과 정치의 기원을 겹쳐 보는 한편 3·1 운동의 엘리트적 근원과 민중적 자율성의 動學을 융합시켜 낼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것이 먼 기대이지만, 여기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식민지 조선에 미 친 충격을 1910년대에 사상·문화가 재편되어 간 양상과 교직시켜 보려는 개략적인 시도에서 그친다.

91) 이광수, 「우리의 이상」, 6쪽.

92) 이광수, 「여의 자각한 인생」, 22쪽.

93) A. Janil & S. Toulmin, 2005, 『빈, 비트겐슈타인, 그 세기말의 풍경』, 석기용 옮김, 이계이 북스, 405~408쪽.

94) 白一生, 1917, 「문단의 혁명이야」, 『학지광』 14호, 49쪽.

■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태극학보』 『매일신보』 『천도교회월보』 『학지광』 『태서문예신보』 『창조』

2. 단행본 및 논문

구만옥, 2001, 「조선후기 주자학적 우주론의 변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태호, 2007, 「『대한매일신보』에서 역사적 시간의 개념」, 고미숙 외, 『근대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실적 심화』, 소명출판.

박희병, 2002, 「淺見綱齋와 홍대용—중화적 화이론의 해체양상과 그 의미」, 『대동문화연구』 40호.

변영만, 2006, 『변영만전집』 상,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성균관대 출판부.

서재만, 1996, 「제1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의 대아랍 전후처리에 대한 연구」, 『중동연구』 15권 2호.

이영아, 2005, 「1910년대 유학생 단편소설에 나타난 죽음의식」, 『국어국문학』 141호.

이철호, 2006,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종교적 자아 담론—靈, 생명, 신인 담론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상숙, 2004,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 민족지도자들의 대외인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호.

金觀濤·劉青峰, 2010, 『관념사란 무엇인가』 2, 양일모·송인재·한지은·강중기·이상돈 옮김, 푸른역사.

譚嗣同, 1981, 「以太說」, 蔡尙思·方行 編, 『譚嗣同全集』, 北京: 中華書局.

惣郷正明·飛田良文, 1996, 『明治のことは辭典』, 東京堂出版.

西川祐子, 2009, 『日記をつづるということ』, 吉川弘文館.

鈴木貞美 編, 1995, 『大正生命主義と現代』, 河出書房.

許培寬, 2002, 『北村透谷とEmerson比較文學研究』, J&C.

Janil, A. & Toulmin, S., 2005, 『빈, 비트겐슈타인, 그 세기말의 풍경』, 석기용 옮김, 이제이북스.

Kern, S., 2004,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 박성관 옮김, 휴머니스트.

Smiles, S., 2005, 『인격론』, 정준희 옮김, 21세기북스.

Rowe, J. C.(1997), *At Emerson's Tomb*, Columbia Univ. Press.

Abstract

The Individualized Form of Modern Time and Space

— The Concepts of Spirit, Life, Universe in 1910s' Korea

Kwon, Boduerae(Korea University)

■ **Key Word** : spirit, life, universe, character, history, World war 1, death, Yi Kwang-su, March 1st movement

The conceptual transformation among the Korean youth in 1910s is marked by the extension to the universe and the convergence to the self. Leap to the temporal and spatial infinity and shrink to the isolated individual was the product of modernity which has vaporated the old family or village bond, and the consequence of dissociation of the authority of nation. The impact of World war 1 played a role of catalyst to finalize such serial changes in the 1910s' Korea. The decade of 1910s can be characterized by the inscription of an individual self against the background of unified world and infinite universe while 1900s was characterized by the strict hierarchy across nations and civilizations. Exceptional passion toward the national independence and flourishing, which entails the justification of the ultimate civilization and the competition as its process, was substituted by the terror and shock in front of the destruction of war, and the fascination of 'spirit' and 'life' to transcend such a limit and terror.